

## 카리브해 지역 크레올어의 현황과 전망\*

- 아이티, 자메이카, 수리남을 중심으로 -

김경희(울산대 카리브해 연구센터)\*\*

I. 서론
II. 크레올어
III. 아이티의 크레올어
IV. 자메이카의 크레올어
V. 수리남의 크레올어
VI. 결론

### I. 서론

그리고 그 인종과 문화를 정의하기 어렵듯이 언어의 실체도 정의하기 어렵다.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중심으로 크게 스페인어권, 영어권, 프랑스어권, 네덜란드어권으로 구분되고<sup>1)</sup> 이들 언어가 공식어로

\* 이 논문은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M2009).

\*\* Kyung-Hee Kim(Ulsan University, The Center for Caribbean Studies, Caribbean Creole Languages, moaikim@mail.ulsan.ac.kr), "The Present Situation of Creole Languages in Caribbean Region and Their Perspective - in the cases of Haiti, Jamaica and Surinam."

1) 스페인어권 지역으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가 있다. 영어권 지역으로는 도미니카연방, 가이아나,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소안티아스 제도의 영국령 섬들인 솜브레로, 앵귤라, 몬트세라트가 있다. 프랑스어권 지역으로는 아이티,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기아나, 과들루프,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레지라르, 프티트테르, 마리갈란트, 일드생트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어권 지역으로 수리남과 쿠라사오, 아루바, 보나르, 사바, 세인트유스타티우스, 세인트마틴이 있다.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중에는 이 언어들에 무지한 경우도 있다. 식민시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카리브어(Carib)나 아라와카어(Arawak) 등의 원주민어는 화자들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고, 지역민의 대다수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이지만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드물다. 그렇다면, 카리브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유럽어도 원주민어도 아프리카어도 아닌 언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크레올(creole)”이라는 용어는 스페인어의 “크리오요(criollo)”에 해당하는 말로, 16~18세기에 스페인인을 부모로 하여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 용어는 ‘토착인’ 혹은 ‘본토박이’를 의미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이 용어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이 지역의 문화를 구성하는 사람이면 계층이나 선조를 가리지 않고 통틀어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김승민 외 2003, 309).

이러한 “크레올”이란 개념에서 파생된 “크레올어”는 식민시대 이후 이 지역의 토착어로 정착한 언어를 지칭한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흑인의 후예들인 지역민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원주민어도 아프리카어도 유럽어도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본 논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카리브해 지역 외에 크레올어 발달 지역으로는 미국과 태평양 연안의 영어계 크레올어 지역,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어계 크레올어 지역, 필리핀의 스페인어계 크레올어 지역 등이 있다.

크레올어에는 여러 가지 언어의 다양한 요소들이 혼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와 아프리카 제어에 기반한 크레올어가 발달하였다. 프랑스어에 기반한 크레올어가 발달한 지역으로는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세인트 루시아 등이 있으며, 영어에 근거한 크레올어 발달 지역으로는 안티가 바부다, 바르바도스, 그레나다, 자메이카, 가이아나 등이 있다. 수리남에서는 스라난(Sranan), 드주카(Djuka), 사라마칸(Saramaccan)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크레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스라난과 드주카는 영어에 근거한 언어로 간주되고 사라마간은 영어와 포르투갈어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Wardhaugh 1986). 네덜란드어에 근거한 크레올어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관찰이 된다.

기타 크레올어로 파피아멘토(Papiamentu)와 가리후나(Garifuna)가 있는데, 파피아멘토어는 네덜란드령인 아루바, 보나르, 쿠라사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크레올어로 아프리카어와 포르투갈어에 기반을 두고 생성되었지만 이후에 스페인어와 네덜란드어의 영향으로 어휘의 75% 이상이 스페인어 계통이고 나머지 25%는 네덜란드어 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복잡한 혼성과정을 거친 크레올어이다.<sup>2)</sup> 반면에, 가리후나어는 여타의 유럽어에 기반을 둔 크레올어와는 달리, 원주민어였던 카리브어와 아라와카어의 혼성어에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뒤섞여 생성된 언어로 온두라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김우중 1998).

이 밖에도 쿠바, 벨리스, 바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바르바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지에서도 국지적으로 크레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크레올어 사용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타 지역의 크레올어 사용자들의 집단 이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Todd 1990). 이렇듯 다양한 언어들의 복잡한 혼성의 결과로 생성된 크레올어들은 카리브해 지역의 인종과 문화, 사회, 정치, 역사의 뒤섞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가 된다.

본 논고에서는 크레올어라고 불리우는 이 새로운 언어의 기원과 특징 및 그 사용 지역에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크레올어를 국가적 단위에서 사용하고 발전시킨 아이티와 자메이카, 수리남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의 위상과 각 국가의 상황이 어

2) 이 언어는 현재 공용어의 위치까지 다다른 카리브해 지역의 주요한 크레올어 중의 하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독립국가에서의 크레올어의 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더 구체적 분석하지 않는다. 이 언어에 대한 연구는 김우중(1995)와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땡게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II 장에서는 크레올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고, 제 III장, IV장, V장에서는 각각 아이티, 자메이카, 수리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 II. 크레올어

### II.1 피진어화(pidginization)와 크레올화(creolization)

언어학적으로 크레올어는 서로 다른 언어의 화자들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접촉언어인 피진어(pidgin)<sup>3)</sup>가 이 언어를 모국어로 학습하고 사용하는 화자층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정착하게 된 언어라고 정의된다(Hall 1966). 따라서 크레올어의 정의에는 피진어의 개념이 선행된다.<sup>4)</sup>

피진어는 상이한 언어의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원어민이 없는 언어이다. 서로 다른 두 언어 간의 화자들의 경우에는 두 언어 중 한 언어를 선택해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포함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시도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임시로 만들어지는 제 삼의 접촉 언어(contact language)가 바로 피진어이다(Wardhaugh 1986). 이 언어는 기존 언어들의 다양한 변이형들이 서로 뒤섞여 또 다른 형태의 언어로 생겨난 것으로 단순화와 간결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3) “피진”(pidgin)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영어에 중국어, 말레이어와 같은 동양어와 포르투갈어 등이 혼합되어 사용된 것을 일컫기 위해 business English에서 business를 중국어식으로 발음하여 표기한데서 유래한다. 즉 영어의 b는 중국어의 p, 영어의 z를 중국어 dg로 바꾸어 표기하면서 “피진(pidgin)”이라는 명칭이 생겼다(이미재 1997, 241).

4) 그러나 크레올어에 반드시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피진어가 선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언어학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비컬튼(1988)은 하와이 크레올 영어의 전신이 비체계적이고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띠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박하였다.

식민지 시대 동안 유럽 열강들은 대량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노예들을 강제로 이송시켜 고립된 연안이나 섬의 플랜테이션 농장에 함께 몰아넣고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섞인 다중 언어의 구성원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피진어를 사용하였다. 최하층 노예가 백인 지배층인 플랜테이션 농장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중간층인 플라토 등이 중재하였으므로 노예계층에서 유럽어를 구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상업이나 행정관리에 유럽어가 공식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유럽어의 영향은 지대했다. 따라서 피진어에는 식민 종주국의 언어였던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의 자취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들 유럽어로부터 차용한 것은 주로 어휘였다.

원어민 화자를 갖지 않는 피진어의 단계를 넘어 서서 피진어 화자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파 및 확산되어 광범위한 원어민을 갖게 되는 것을 크레올어화(creolization)라고 한다. 크레올어는 거의 모든 의미에서 정상적이며 독립적인 언어로, 형태와 통사가 확대되고 음운에 규칙성이 관찰되며, 어휘 수가 증가되고 그 언어가 사용되는 기능 또한 증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크레올어화는 단순화와 간결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피진어화(pidginization)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과정에 대해 와도우(1986)는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Pidginization generally involves the simplification of a language, e.g., reduction in morphology(word structure) and syntax(grammatical structure), tolerance of considerable phonological variation(pronunciation), reduction in the number of functions for which the pidgin is used(e.g., you usually do not write novels in a pidgin), and extensive borrowing of words from local mother-tongues. On the other hand, creolization involves expansion of the morphology and syntax, regulization of the phonology, deliberate increase in the number of functions in which the language is used, and

development of a rational and stable system for increasing vocabulary.  
(Wardhaugh 1986, 59)

그러나 피진어와 크레올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어려우며 피진어의 개념이 크레올어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전체 피진어 가운데 크레올어로 정착하는 언어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그 필요성의 상실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자수는 크레올어 화자가 피진어 화자보다 훨씬 더 많다. 크레올어 화자는 1천만에서 1천 7백만에 이르지만 피진어 사용자의 수는 6백만에서 1천 2백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Wardhaugh 1986).

## II.2. 크레올어의 기원

크레올어는 상이한 언어들이 혼성되어 생성된 언어이고 그 분포 지역도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많은 유사점이 관찰된다. 근간이 되는 언어도 다르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지도 않은 크레올어들 간의 공통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되어 온 이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휘눔(1965)이 주장한 “포르투갈어 단일 기원설”(Portuguese monogenesis model)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럽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피진어과 크레올어는 15세기의 포르투갈어계 피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포르투갈어가 유럽외의 영토에서 사용된 최초의 유럽어였으며,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붙잡혔던 노예들이 감금되었던 요새나 노예무역시장 혹은 노예선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운 뒤, 각지의 사탕수수농장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네덜란드어계 피진과 크레올어는 그 원어(source language)가 된 포르투갈어계 피진어의 어휘 목록을 재구성(relexification)함으로써 생긴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라이드(1983)가 주장한 “유럽 지역적 변이

어 이론”(Regional european variety theory)에서는 유럽 각 지역의 방언화자들이 식민지로 이주함으로써, 비표준적 방언 자질이 크레올어들에 반영되었다고 본다.<sup>5)</sup> 따라서 크레올어 간의 유사성은 유럽 지역 방언들이 단 하나의 표준어를 공유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한콕(1986)은 그의 “대서양권 단일 원어 이론”(Atlantic mono-source hypothesis)에서 서부 아프리카 해안지역에 걸쳐 영어계 피진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피진어에서 대서양 지역의 영어계 크레올어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크레올어 간에 공통적 자질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다른 시각의 이론으로 알린(1981)이 주장한 “아프리카 기원설”(Afro-genesis model)이 있다. 그에 따르면, 카리브해 지역의 크레올어 화자들은 주로 서부 아프리카 출신이므로 이들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여러 크레올어가 보이는 유사성은 서부 아프리카 제어의 공통자질들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는 유럽 식민어의 특징을 지니지만 통사와 음운 체계는 아프리카제어의 특징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알린은 연구대상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크레올어만을 다루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산코프(1980)가 주장한 “공통의 사회적 문맥 이론”(common social context theory)에서는 크레올어의 기능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사탕수수 농장에 갓 도착한 다중어 사용 노예들은 공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 의사소통의 필요성이라는 공통적 요인이 일련의 유사한 임시 변통적 소통체계를 낳게 되고, 이 소통체계가 정착하게 되면서 크레올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사성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조된 체계가 왜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여, 언어 학습 과정과 인간의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앤더슨(1983)의 “제 2언어 불완전 학습이론”(imperfect second language theory), 나로(1978)의 “아기말 이론”(baby talk theory), 세우렌(1983)의 “의미적 투명이론”(semantic transparency theory), 비컬

5) 뤼스켄(1988, 285-287)과 현기홍(1989, 161-163)에서 정리한 내용을 재인용.

톤(1984)의 “생체 프로그램 이론”(bioprogram theory) 등이 있다.

제 2언어 불완전 학습이론은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 대상 언어에 근접한 단순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학습 과정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아기말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차이점은 불완전 학습이론에서 단순구조는 학습자가 만들어 낸 것이지만, 아기말 이론에서는 언어 입력 자체가 단순했다는 것이다. 즉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성인들이 언어를 단순화시켜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유럽인 화자들이 언어를 단순화시켜서 의사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언어 입력 자체가 단순한 구조를 띄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의미적 투명이론은 모든 언어의 심층 의미 구조는 동일하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크레올어의 단순성은 이 의미 구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체 프로그램이론은 피진어를 입력 받은 아이들이 이 불충분한 언어를 보다 완벽한 언어인 크레올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사용해서 보완하였는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체계는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단순한 양상을 띠는 이론이다(Muysken 1988, 285-287). 이러한 이론들은 경험적 사실보다는 이론적 가설에 기반을 둔 것으로 현재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기의 많은 이론들 가운데 본 논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카리브해 지역의 크레올어의 기원과 유사점에 관해서 명시적인 설명력이 가장 강한 이론은 아프리카 기원설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대부분의 크레올어에서 관찰되는 아프리카어적인 요소와 유럽어적인 요소의 혼성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571년부터 스페인 사람들은 아프리카 노예를 카리브해로 수입해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초부터는 유럽 사람들이 서아프리카해안에서 값싼 유럽의 물건과 흑인 노예를 물물교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흑인노예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루었으며 카리브해 등지에 실어다가 사탕수수, 럼주, 당밀 등과 교환한 뒤 유럽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교역의 형태를 “대서양 삼각 노예무역”이라고 한다. 노예교역상들은 노예들의 반란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 배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 종족을 다수  
 실지 않았다. 서로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힘들도록 상이한 언어  
 를 사용하는 종족들을 뒤섞어 실은 것이다. 그 결과 몇 가지 임시방  
 편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어인 피진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흑인 노  
 예들은 카리브해 지역에 도착한 이후에도 같은 종족끼리 공동생활권  
 을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  
 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피진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발전시  
 키게 되었다. 이 노예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피진어를 생활어로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 인구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점차 크레올어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이  
 론이라고 보며, 그 밖의 학습이론이나 생체이론 등은 부분적으로는  
 설명력이 있으나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 가설들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따르고 있지 않다.

### II.3. 크레올어의 특징

크레올어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유럽의 식민어  
 를 기반으로 한 크레올어들 간에 유사성이 많다는 것이다. 뤼스켄  
 (1988)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되는 토크 피진(Tok Pisin), 세네갈의  
 크리올(Kriol), 그리고 아이티의 크레올(Créole)의 예를 통해서 상이한  
 지역의 크레올어들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  
 다.

#### (1) a. 파푸아 뉴기니 토크 피진어의 예

wanpela man i bin skulim mi long Tok Pisin  
 one man PR ANT teach me in Tok Pisin  
 'A man was teaching me Tok Pisin.'

#### b. 세네갈 크리올어의 예

sō mō ka ta toka pālmū

one hand NEG HAB touch palm  
 'One hand can't touch its palm.'

c. 아이티 크레올어의 예

m te pu bay lazā  
 I ANT MD give money  
 'I had to give the money.'

(Muysken 1988, 291)

예(1)의 세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첫 번째 특징은 모두 어순이 SVO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크레올어에서 관찰되는 특징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에 기반을 둔 크레올어에서는 현저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나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에 근거한 크레올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동사 앞에 조사(particles)를 사용해서 서술어 표시, 시제의 앞섬, 부정, 습관, 법 등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1a)의 i는 서술어 표시를 하고 있으며, bin은 시제의 앞섬을 표시한다. (1b)의 ka는 부정의 표시이며, ta는 습관적 동작임을 표시한다. (1c)에서 te는 시제의 앞섬을 표시하고 pu는 법을 표시한다.

세 번째 특징은 형태적인 단순성이다. 유럽어와 비교해 볼 경우 동사와 명사의 굴절 현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예 (1)의 세 언어 모두 동사에 시제와 인칭 표시가 없으며, 명사에 격과 수의 표시가 없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크레올어도 상기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비켈톤(1988)과 같이 선천적인 언어 능력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는 그 어휘의 근간을 이루는 유럽어의 음보다 더 간결하고 덜 복잡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톱 피진어에서는 it과 eat이 발음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연관된

표준어와 상당한 유사성을 띄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유형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 예로 동일한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talk은 ‘말하다’의 의미이지만 talktalk은 ‘수다를 떨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Wardhaugh 1986). 이러한 특징들 역시 크레올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 II.4. 크레올어의 발전 과정

크레올어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토드(1990)는 네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엽적인 접촉’(marginal contact)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토착화’(period of nativization)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지배언어의 영향’(influence from the dominant language)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크레올 연속체’(the post-creole continuum)의 단계이다. 그는 이러한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레올어의 예를 들고 있다.

토드(1990)에 따르면, 지엽적인 접촉의 단계는 영어화자와 다중어 화자들 간의 비지속적이고 우발적인 접촉 과정에서 물리적인 필요나 상업 거래를 위해 제스처를 동원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엽적인 피진어가 사용되는 단계이다. 토착화 단계는 피진어가 지역 민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때 언어의 발전은 한 방향으로 확장된다. 즉 화자들의 모국어로부터 어휘 차용이나 직역 등이 이루어진다. 지배언어의 단계는 인종간의 접촉이 증가됨으로써 지배언어인 영어로부터의 어휘 차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크레올 연속체 단계는 영어가 공식어인 지역에서만 보이는 현상으로 영어와 크레올어의 접촉이 지속적이며, 표준 영어 교육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탈크레올화(decreolization)현상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음운, 어휘, 통사, 전 영역에 걸쳐서 영어의 영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어에 가까운 언어로 전환하게 되고, 영어와 상이한 언어라기보다는 일종의 방언에 가까운 언어가 되는 단계를 일컫는다. 와도우(1986, 81)도 이러

한 현상은 두 언어를 사용하는 계층 간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가 현저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보고, 이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은 두 계층 간의 거리가 점차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드캠프(1977)도 연속체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으로 영어 사용의 확대와 사회 계층 간의 거리 축소를 주장하였다.

토드(1990)는 탈크레올화 현상의 예로 자메이카의 크레올어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 언어가 자메이카 표준 영어와 분명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영어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례로는 수리남의 크레올어들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 언어들은 영어에 기반한 크레올어들이기는 하지만, 공식어가 네덜란드어인 관계로 영어와의 강한 접촉이 끊기면서 탈크레올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III. 아이티의 크레올어

#### III.1. 역사적 배경

콜럼부스는 1492년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황금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산 살바도르 원주민들은 “아이티(Haiti)”<sup>6)</sup>에 많다고 알려주었으며, 콜럼부스는 이를 “히스파놀라(Hispaniola)”라고 명명하고 스페인령에 합병하였다. 이 섬에는 아라와족과 카리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스페인사람들은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 금광을 개발하였고, 섬의 서부 지역 금을 다 채굴한 뒤에는 현재의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치한 동부로 옮겨갔다. 백만으로 추정되던 원주민의 인구는 1507년경에 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James 1963, 3-4).

지속된 강제 노역으로 원주민 인구는 한 세대도 채 지나기 전에 파멸되었으며 토지를 경작하고 금과 다른 광물을 채굴할 노동력에

6) 원주민어로 산이 많은 땅이라는 의미임.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임스(1963)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라스 까사스 신부는 인구가 밀집한 서아프리카로부터 건장한 흑인들을 수입해 오는 방안을 제안했다. 1517년 까를로스 5세는 15,000명의 흑인 노예들을 현재의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이 중남미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시초가 되었다. 노예로 산토 도밍고에 실려 온 수천 명의 흑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인 지금의 기네아, 앙골라, 세네갈, 베닌, 상아 해안과 콩고 출신이었다(Laguerre 1980, 446).

1629년경에는 신대륙으로 다른 유럽인들이 밀려들어 오기 시작했으며, 몇몇 프랑스의 부랑자들이 히스파놀라섬 북쪽에 위치한 토르투가(Tortuga)라는 작은 섬에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섬에 거주하게 되면서 프랑스인, 영국인 그리고 스페인인들이 이 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약 30년간 분쟁을 벌였다. 이러한 와중에 영국인들이 서인도 제도의 다른 섬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히스파놀라에는 프랑스인들과 스페인인들만 남게 되었다. 마침내, 1695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라이스윅 조약(Treaty of Ryswick)으로 섬의 서부에 해당하는 3분의 1이 프랑스 소유가 되었으며, 동부가 스페인 소유가 되었다.

1734년까지 히스파놀라 섬의 프랑스령에서는 주로 커피를 재배하였다.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식민정복자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계약직 하인으로 백인들도 이주시켰다. 그러나 백인들은 열대 기후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해마다 수천 명씩 노동력 부족을 매우기 위하여 노예로 이 지역으로 끌려왔다. 흑인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789년경 아프리카 흑인 노예와 백인의 비율은 17대 1이었다(Fleurant 1973).

1802년 아이티 흑인들은 유럽에서 파견된 나폴레옹군대를 분쇄하며, 1803년 아이티의 장군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가 주도한 혁명에 의해 해방되었다. 1804년 최초의 흑인 독립 국가를 탄생시킨 아이티는 남아 있는 백인을 참수 혹은 축출하여 흑인과 혼혈인으로만 구성된 국가를 이루었다.

식민시기인 1685년 제정된 “흑인법”(Code Noir)에서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흑인들은 크레올어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의 혼혈인들만이 프랑스어를 구사하였다(김승민 외 2003, 311).

독립과 함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프랑스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분출되었다. 성공과 신분상승을 위해 프랑스어는 우상화되었다. 따라서 독립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유지하게 되었고 크레올어에 대한 관심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당시 주민의 17% 정도만이 초보적인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전체 인구의 93%는 문맹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1915년 미국의 아이티 점령은 역설적으로 아이티 지식인들에게 문화의 쇠신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으며, 1915년에서 1934년간의 점령기간에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크레올어는 진지한 언어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크레올어 문법 연구 활동 조직이 구성되었다.

1979년에는 특별법으로 아이티 인구의 90%가 사용하는 크레올어를 공인하였고 이 언어를 교육어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교육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1983년에 되어서야 비로써 헌법 제 62조에 프랑스어와 크레올어를 둘 다 공식어로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프랑스어를 우월한 언어로 간주하였다(Chaudenson 2001, 25-26).

### III.2. 아이티의 크레올어

김우중(2002)은 아이티 크레올어의 문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프랑스어의 굴절적 특징이 대부분 소멸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이 크레올어는 로망스어 중에서 발음상 굴절 현상이 가장 많이 축소되어 있는 프랑스어를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크레올어에 비해 이러한 특징 더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명사형은 성·수

구별이 없으며, 수의 구별은 프랑스어의 정관사에서 나온 접사를 사용하여 구별한다. 동사는 원형이 굴절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되며, 시제와 법은 동사의 어미변화에 의하지 않고, 보조사에 의해 표현된다. 조동사를 포함하는 보조사는 그 수가 한정적이어서 현재형과 과거형은 형태가 같으며, 반과거, 직전과거, 조건법, 과거진행형도 형태가 같다. 따라서 시제의 구분은 문맥 혹은 함께 사용된 시간의 부사에 의해서 구분된다. 어순은 인도유럽어족과 마찬가지로 SVO의 어순을 가지며, 부정어와 시제표시 보조사는 예(1a)에서처럼 동사에 선행한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1c)에서처럼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도치시키지 않으며 상향 억양으로 의문문임을 표현한다.

1) 아이티 크레올어의 예

a. li pa te konē(he didn't know.)

b. li bel (he/she is pretty.)

c. li bel? (is he/she pretty?)

(Todd 1990, 29)

그 밖에 이창순(2000)이 지적한 크레올어의 특징으로는 먼저 전설 원순 모음을 사용하지 않으며 마찰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4~15세기의 프랑스어와 유사하게 동사에 접두사적인 지시소를 많이 쓰고, 고대 프랑스어의 한 방언에서 유래한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수 1인칭과 2인칭에 쓰이는 *zot*는 피카르디 방언의 *iaus*에서 파생한 *yo*의 강조 형태인데, *iaus*는 고대 프랑스어의 *eus*를 어원으로 갖는다. *on*이 복수 1, 2인칭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삼인칭 단수 *il*이 복수 명사 대신 주어로 쓰이기도 한다. 명사 앞에 오는 한정사들, 예컨대 관사나 지시 한정사, 소유 형용사의 형태도 많이 단순화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아프리카어의 영향을 받아 명사 뒤에 놓이는 경향도 있다. 어휘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어휘들은 프랑스어가 기원이다. 또한 프랑스어의 거의 모든 단어들은 음운의 변형에 의해 쉽게 크레올어화 될 수 있다. 기원이 명

백하지 않은 어휘의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프랑스어의 고어 조어법이나 신어 조어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상 생활에서의 크레올어 사용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은 언어의 병용현상(diglossia)<sup>7)</sup>을 보인다. 크레올어가 수치와 열등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sup>8)</sup>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에서 특히 크레올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크레올어는 공신력은 없지만 화자들 간의 상호호감과 교류의 매체로 실질적인 접촉에서 유리한 언어로 여겨지는 반면, 권위 있고 상징적인 프랑스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인위적인 접촉의 경우에만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화자들은 프랑스어를 구사함으로써 상류 사회의 규범 및 제도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식·무의식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프랑스어를 포기하고 크레올어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다(이창순 2000).

#### IV. 자메이카의 크레올어

##### IV.1. 역사적 배경

자메이카섬은 1498년 콜럼버스의 세 번째 항해로 발견되었으며,

- 
- 7) “언어의 병용”이란 ‘이언어의 사용’ 혹은 ‘두 언어변종의 나누어 쓰기’의 개념으로, 페르구손(1959)이 두 언어 혹은 두 방언이 동시에 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정의한 것이다.
- 8) 예프론(1954)이 크레올어 표현에 프랑스어는 우선적이며 크레올어만이 정직과 진실을 표시하는 언어라고 강조하는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래의 예들을 들고 있다.
- a. fai' la France(to do as the French do)  
'말은 많지만 쓸 말이 없다'
  - b. créole palé, cléole comprenn(creole spoken, creole understood)  
'진정한 의사소통은 크레올어로만 가능하다'
  - c. palé français(speak French) '아부하다'



1509년 스페인의 에스키벨이 원주민인 아라와족을 정복하면서 식민지가 되었다. 지하자원을 발견하지 못해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이 추진되었는데, 원주민들은 노동으로 혹사당해 수 년 동안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스페인과 남아메리카를 오가는 선단(船團) “플로타스”의 중계지로서, 이스파니올라섬 다음으로 중요한 스페인 식민지 무역 창구 구실을 하였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시기에 서부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들을 자메이카로 수입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침입하자 이들 노예 중 일부는 도망하여 숲과 골짜기 등지에 숨어살면서 자유 흑인 집단인 머룬(Maroon)촌을 형성하였다.

1655년 영국총리 크롬웰이 자메이카를 점령하고 스페인 사람들을 몰아냈다. 그 후, 1670년 마드리드조약으로 완전히 영국식민지가 되었다. 이 때 사탕수수 재배법이 도입되어, 17세기에 크게 번영했던 바베이도스를 제치고 18세기에는 서인도제도 으뜸의 제당 산지로 발전하였다. 1774년 자메이카 국세조사에 따르면 680개소의 경작지에 있는 12만ha의 농장에서 10만 5,000명의 흑인 노예와 6만 5,000마리의 가축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밖의 농지 1,200km<sup>2</sup>에서도 4만 명의 흑인 노예가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자메이카는 영국·서아프리카·카리브해를 잇는 삼각노예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40만 명의 노예가 매매되었다고 한다. 1830년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노예제도 폐지와 1848년 영국에서 시작된 자유무역은 자메이카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카리브해 지역간의 경쟁과 더불어 네덜란드령 자바섬에서는 사탕수수의 플랜테이션 재배가 시작되고 동유럽에서는 사탕무를 이용한 제당업이 등장하여, 자메이카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쇠약해졌다.

자메이카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보크사이트를 개발하면서부터이다. 1944년 선거에 따라 의회가 설치되고, 1953년 내각정부제도가 채용되며, 1959년에는 완전한 자치제도가 승인되는 등 자치권은 대폭 확대되었다. 1958년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가 중심이 되어 다른 카리브해 지역 영국식민지와 함께 서인

도제도연방을 결성했으나, 자메이카는 연방가입을 불리한 것으로 보고 1961년에 탈퇴한 뒤, 1962년 8월 6일 독립을 성취하였다.<sup>9)</sup>

#### IV.2. 자메이카의 크레올어

자메이카 크레올어의 특징은 어휘와 발음상의 특징과, 구조와 문법상의 특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이미재(1997)는 어휘와 발음상의 특징으로 첫째 16세기와 17세기 영국 영어의 어휘와 발음의 보존을 꼽는다. 극소수의 지배자 또는 플랜테이션 주인이 쓰던 당시의 방언 영어의 발음상의 특징이 특히 모음에 고정되어 남아있다. 두 번째는 서부 아프리카어의 영향이 자음에 크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배 계층의 언어인 영어 어휘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영어가 언어 사용자의 본래 언어에 존재하는 음이나 유사한 음 또는 좀더 쉬운 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동일한 저자가 지적한 구조와 문법상의 특징은 첫째는 격(case) 표지에 있어서 영어의 목적격이 크레올어에서는 주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주인의 언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격은 목적격이다. 그래서 피지배층은 목적격에 익숙해지고 주격은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자 이것이 정착해서 예(1a)에서처럼 주격으로 대체되었다. 두 번째는 성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예(1b)에서 크레올어의 Him은 영어의 he를 의미할 수도 있고 she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문맥으로만 파악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수 표지인 (e)s가 없고 예(1c)에서처럼 they의 목적격인 dem을 명사의 뒤에 붙여 복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시제 표지가 없다는 것인데, 영어의 삼인칭 단수 표지인 -(e)s나 과거 표지인 -ed가 없고 be 동사가 생략된 형태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는 각각 (1d), (1e), (1f)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a. Me come fram Kingston.(I come from Kingston.)  
 b. Him is me fren.(He/She is my friend.)

9) 네이버 백과사전(<http://www.naver.com>)과 이미재(1997)를 인용함.

- c. de gal(the girl) / de gal dem(the girls)
- d. Him hab plenty money.(He has plenty money.)
- e. You poas me letter?(Did you post me a letter?)
- f. Tea mek wid bwilin wata.  
(Tea is made with boiling water.)

(이미재 1997, 255-257)

자메이카의 크레올어는 구어로만 전해지다가 1940년대부터 루이스 베넵(Luise Bennett)같은 시인이 이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어로도 정착하였다. 그러나 문어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맥크롭(1999)은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뉴스 기사에는 일반적으로 영어가 사용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지식층인 기자들마저도 크레올어의 영향을 받은 자메이카식 영어를 구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대화체 언어에서는 맥크롭이 지적하였듯이 영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nyam(eat), tacko(ugly) 등의 어휘가 나타나고, 그 외에 현지에서 만들어진 문장 구조도 약간 나타난다. 그러나 발음은 표준 영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언어가 바로 탈크레올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크레올 연속체이다.

크레올 연속체는 크레올의 일종이므로 영어화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상이한 언어이지만, 영어의 방언에 속하는 자메이카 표준 영어와는 유사도가 점점 높아져 상호 이해되는 언어이다. 그래서 언어들 간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순수 크레올어 > 크레올 연속체 > 표준 자메이카 영어 > 순수 영어”의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 크레올어나 순수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없으며 크레올어와 자메이카 영어 사이의 다양한 변이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사용 언어가 화자의 사회 계층을 대변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1>에서 크레올어와 영어라는 양 극간에 다양한 형식의 연속체가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lt;표 1&gt; 자메이카 크레올어 연속체의 예

크레올어	연속체	영어
a fi mi buk dat	iz mai buk iz mi buk a mi buk dat	it's my book
a we i de?	wier it iz? wier i de? we i de?	where is it?
mi na bin nyam non	ai didn it non a in nyam non mi inn nyam non	I didn't est any

(Todd 1990, 61)

그러나 이러한 탈크레올화 현상이 모든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쉘즈(1989)는 크레올어가 표준 영어를 닮아가는 일방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한 반론으로 자메이카의 표준 영어 화자가 줄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신문의 사설과 독자 기고란 등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표준 영어의 사용은 줄어들고 크레올어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영어가 크레올어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영어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크레올어 구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언어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Bryan 2004, 648).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자아의식과 민족의식이 너무 강한 크레올어보다는 표준영어를 약간 개량한 자메이카식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하급 학교일수록 교사들의 영어 능력이 저조해서 크레올어를 많이 섞어 쓰는 경향을 보인다. 앞선 연구인 크레그(1971)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구어에 크레올어적인 특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인 브라이언(1997)의 경우는 교육 현장에서 영어와 크레올어의 이중어가 쓰이기보다는 크레올어만을 쓰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산 계층의 젊은이들은 라스타어(Rasta Talk)<sup>10)</sup>적인 요소들을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이는 이 종교어가 자메이카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으로써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력이 카리브 영어의 독자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가 내적 압력과 외적 압력이라는 두 가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메이카인들은 독자성을 저버린 표준 영어를 추종하지도, 외부 세계와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크레올어도 선택을 못하며 과도기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 V. 수리남의 크레올어

### V.1. 역사적 배경

수리남은 16세기에 스페인이 점령하였으나, 금·은이 산출되지 않아서 포기하였다. 네덜란드가 1581년에 진출하여 1616년까지 몇 개의 작은 식민지를 만들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노예를 수입하였다. 17세기 중엽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수리남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수리남 영유권 싸움은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으나 영국의 짧은 통치 이후, 1815년 파리조약으로 네덜란드영유권이 확립되었다.<sup>11)</sup>

10) 라스타파리아니즘(Rastafarianism)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라스타파리아니즘이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황제 라스 타파리를 추종하는 종교로, 1930년 그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자메이카의 가난한 민중들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으로 선포된 그가 '왕들의 왕'이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구세주,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했다. 사실상 아프리카 토착 신앙에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가 혼합된 이 종교는 자메이카인들에게 있어 완전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써 그들의 생활 자체에 스며들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라스타어(Rasta Talk)은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요소를 가진 언어로 영어 어휘의 의미와 구조를 재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I and I"는 라스타주중주의자들을 지칭하며, "All is irie."라는 표현은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11) 네이버(<http://www.naver.com>) 백과사전을 인용함.

1863년에 노예가 해방되었고, 플랜테이션 농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인도와 자바, 중국 등지에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계약 종료 후 이들 중 일부는 귀향하고 대다수는 수리남에 남았다. 그 후 플랜테이션 경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자유 소작농이 되어 사회의 큰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Dew 1987).

1954년 네덜란드왕국 헌장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리남은 네덜란드왕국의 한 구성 영토가 되었으며 네덜란드 본국과 대등한 내정자치권을 획득하였다. 그 뒤 1975년 11월 수리남공화국으로 독립하였고, 이 독립운동은 주로 흑인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주민의 구성은 흑인계 크레올족(35%)과 인도계(35%)가 2대 종족을 구성하고 있고, 그밖에 자바계(15%), 부쉬네그로(8%), 아메르 인디안(3%), 중국인(2%), 유럽계 등 기타(2%)가 있다(외무부 1987, 26). 크레올족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주로 정부와 사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인도계와 자바계는 농장의 계약직 노동자의 후손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쉬네그로는 도주한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으로 대부분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토착 원주민의 후예인 아메르 인디안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국토인 내륙지방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회의 특징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다종족 사회인 관계로 인종문제가 상호 불신과 대립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종족은 고유의 풍속 및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유의 복장을 입고, 고유의 휴일을 즐기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미개발 지역이며 주민은 수도 파라마리보를 중심으로 한 북부해안지방에 집중하여 생활하고 있다(외무부 1987, 25).

## V.2. 수리남의 크레올어

해안지역에서 사용되는 스라난(Sranan)은 영어에 기반한 크레올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와의 유사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언어이다(Wardhaugh 1986, 62). 내륙 지방에서 사용되는 드주카(Djuka)는

도망친 노예들에 의해 사용된 영어의 크레올어화된 변이형에서 비롯되어 내륙의 원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사라마칸(Saramaccan)<sup>12)</sup>은 포르투갈어에 근거를 둔 것으로도 영어에 근거를 둔 것으로도 간주되는 언어로 1667년 영국이 네덜란드에게 식민지를 양도한 후 영국과의 접촉이 끊기면서 또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Wardhaugh 1986, 62).

앞서 언급했듯이, 수리남의 경우에는 영어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영어에 기반한 크레올어를 사용하지만 이들 크레올어의 탈크레올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에서 보듯이, 탈크레올화 과정을 겪고 있는 자메이카의 크레올어와 비교해 볼 경우 수리남의 스라난은 영어와의 유사도가 훨씬 낮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2> 수리남의 크레올어 스라난의 예

영어	자메이카 크레올어	수리남의 크레올어 스라난
arm/hand	han	ana
back	bak	baka
blood	blɔd	brudu
head	hed	ede
stomach	beli	bele
ask	(h)aks	aksi
come	kɔm	kɔm
give	gi	gi
go	go	go
take	tek	teki

(Todd 1990, 11)

12) 형태, 통사 구조에 있어서 가장 간결화된 언어의 예로 많은 연구가 되었으며, 종속 형태소와 독립형태소, 지시사 등이 없으나, 다양한 아프리카어적인 요소가 이를 충족시키고 있는 언어이다. 프라이스(1976)에 따르면, 전체 어휘의 50% 정도가 아프리카어에 기원을 둔 것으로 관찰된다(Bickerton 1988, 276).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공식어인 네덜란드어가 전체 인구의 2%이 하만이 구사할 줄 아는 언어로 일반 대중들이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드물고(Wardhaugh 1986, 62), 영어는 공식어가 아닌 관계로 스라난이나 드주카와 같은 크레올어를 사용하고 있다(Todd 1990, 78-79)<sup>13</sup>. 이렇게 비합리적인 교육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1964년 독립 이후 더 이상 네덜란드어를 고수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어졌지만, 공식어로 특정 크레올어를 지정하거나, 기존의 모든 크레올어를 인정하는 것은 각각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단기적으로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부족,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계와 자바계가 사용하는 인도와 자바어, 그리고 중상류층 이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어의 국제적인 위상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VI. 결론

언어의 크레올화 현상은 카리브해 지역 문화 혼성 현상의 핵심을 이룬다. 본 논고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아이티의 크레올어와 자메이카의 크레올어, 그리고 수리남의 크레올어를 살펴보았다. 이들 언어는 그 발전 과정에서 지배어인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어와 지속적인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고, 현재까지도 사회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최상층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지배어를 구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언어를 통하여 민중문화와 민족문화를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 크레올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3) 독립 이전인 1964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어 화자는 37.1%에 달하고, 스라난 화자는 13.8%, 인도어 화자가 31.7%, 자바어 화자가 15.4%로 4대 주요 언어였으며, 그밖에 영어, 드주카, 사라마칸 등의 화자가 2% 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Dew 1978, 11).



아이티의 크레올어는 프랑스어와 함께 공용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자메이카의 크레올어는 탈크레올화 현상을 보이며 자메이카 표준 영어에 동화되어 감과 동시에 라스타어 등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이렇게 대별되는 아이티와 자메이카의 크레올어의 위상은 이 두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대별됨을 시사해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아이티에서 프랑스어와 크레올어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은 이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간의 사회 계층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아이티는 도시와 시골이 대립과 단절의 양상을 보이면서 도시 상류층과 시골의 하류층간의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와는 달리 자메이카의 경우에는 크레올어가 영어에 동화되어 가는 크레올 연속체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계층 간의 분리도 아이티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연속체의 양끝에 있는 언어 화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근접하다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크레올어만 고려할 경우 이를 공식어로 지정한 아이티에서 이를 사용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더 높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메이카에서보다 더 큰 계층간의 차별을 겪고 있다. 수리남의 경우에는 공식어인 네덜란드어가 실질적으로는 최소로 사용되고 있고 크레올어와 인도어, 영어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언어적 불일치가 사회 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가장 먼저 이식되었던 유럽어인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이 언어에 기반을 둔 피진어는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필요성의 상실로 소멸하였으며, 자연히 크레올어도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스페인이 제당 산업에 노동집약적인 경작체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포르투갈로부터 땅을 빌리곤 했으며, 아프리카에 많은 노예 요새지와 정착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흑인 노예 집단과 장기적인 언어 접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McWhorter 1995). 또한 식민 초기부터 선교사들을 통해 스페인어 보급에 적극적이었으며, 혼혈을 통해 스페인의 피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전파하여 이제는 스페인어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현재 미국령이면서도 주민의 90%이상이 스페인어 화자인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이다(김경희 2004).

스페인어에 기반한 피진어가 그 필요성의 상실로 소멸하였듯이 여타의 언어들도 필요성을 상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가장 먼저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리남에서 네덜란드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급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까닭은 단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각 이익집단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언어 장벽이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이한 크레올어를 다 공식어로 지정하는 것도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또한 이 언어들보다 더 많은 화자층을 지닌 인도어와 자바어를 선택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엘리트 계층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어와 같은 제 3의 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자메이카의 크레올어의 경우에는 영어에 동화되는 정도가 민족주의 운동과 라스타어의 정착으로 인해서 좀 더더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 존재가 희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티의 크레올어의 경우에는 프랑스와의 단절과 북미의 영향으로 프랑스어에 동화되기 보다는 영어의 영향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Abstract

There are several Creole languages which are used on the national level in Caribbean region. These languages have some features of European languages and African languages, because they derived from the pidgins used by south-north african slaves who were forced to settle

in this region. Many pidgins disappeared as their necessity vanished. Such are the cases of the pidgins based on Spanish languages. But in the case of Haitian creole which is one of the creole languages based in French, it was nominated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nation in 1983, parallel with the French. On the other side, Jamaican creole which is one of the creole languages based in English, is developed continually under the dominance of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nation. It has gained so many features of English that its speakers couldn't help mixing both languages in use. They neither speak English nor the creole language. What they speak is the post creole continuum. This is a kind of floating language between the two poles. In the case of Surinam, its official language is Dutch, though it is used by less than 2% of its population. So in the school neither the teachers nor the children understand the Dutch. They prefer creole languages like Djuka, Suranan and Samaraccan, or English.

In this paper we observ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reole languages in Haiti, Jamaica and Surinam in detail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this kind of languages in Caribbean region in general. For this purpose, in the second chapter we exam some theories about their origin and nature and in the following three chapters we look through the detailed situations of each nation.

Key Words: Creole languages, Haitian creole, Jamaican créole, Djuka, Sranan, Samaraccan / 크레올어, 아이티의 크레올어, 자메이카의 크레올어, 수리남의 크레올어

논문투고일자: 2004. 09. 23

심사완료일자: 2004. 10. 10

게재확정일자: 2004. 10. 20

### 참고문헌

- 김경희(2004), 「푸에르토리코의 언어정책」,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2, pp. 59-83.
- 김승민/이복남/한양환(2003), 『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연구』, 푸른 길.
- 김우중(1995), 「Papiamentoe어와 Chamorro어의 대조 고찰 - 스페인어 유래의 어휘를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No. 8, pp. 1-26.
- 김우중(1998), 「가리후나(Garifuna)에 관한 고찰」, 서어서문연구, No. 13, pp. 3-17.
- 김우중(2002), 「카리브해 도서지방의 변성 혼성어에 관한 고찰: patois어와 papiamentoe어의 발음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No. 22, pp. 3-16.
- 맥크룸/크란/맥네일(1999), 『영어의 이해-영어권 세계일주(The Story of English)』, (김윤경 역), 한국문화사.
- 외무부(1987), 수리남공화국 개황, 외무부 미주국.
- 이미재(1997), 「자마йка 언어 ‘Patois’에 대하여」, 언어학, No. 21, 한국언어학회, pp. 241-263.
- 이창순(2000), 『프랑스어사(史) 개요』, 신아사.
- 현기홍(1989),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어계 혼교어(creole)에 대해서 - 케이프.베르데(Cape Verde) 크레올어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 4, No. 2, pp. 157-192.
- Alleyne, M. C.(1981), *Comparative Afro-American*, Ann Arbor: Karoma.
- Anderson, Roger(1983),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as language acquisition*, Rowley: Newbury House.
- Bickerton, D.(1984), “The language bioprogram hypothesi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7, No. 2, pp. 173-221.
- Bickerton, D.(1988), “Creole languages and the bioprogram”, in Frederick J. Newmeyer(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Vol. II: Extensions and Im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68-284.

- Bryan, Beverley(2004), "Jamaican Creole: In the process of becoming",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7, No. 4, Special Issue, pp. 649-656.
- Chaudenson, Robert(2001), *Creoliz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London: Routledge.
- Craig, Dennis R.(1971), "Education and Creole English in the West Indies: some sociolinguistic factors", in Dell Hymes (ed.),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of language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in Mona, Jamaica, April 19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1-392.
- DeCamp, D.(1977), "The Development of Pidgin and Creole Studies", *Pidgin and Creole Linguis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Dew, Edward(1978), *The Difficult flowering of Surinam: ethnicity and politics in a plural society*, Hague: Martinus Nijhoff.
- Efron, Edith(1954), "French and Creole Patois in Haiti", *Caribbean Quarterly*, Vol. 3, No. 4, pp. 199-213.
- Ferguson, C.(1959), "Diglossia", *Word*, No. 15, pp. 325-340.
- Fleurant, G.(1973), "Caste, class conflict and status quo in Haiti", in D. E. Gelfand and R. D. Lee(eds.), *Ethnic conflicts and power: a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p. 178-193.
- Hall, R. A. Jr.(1966), *Pidgin and creole languag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ncock, Ian F.(1986), "The domestic hypothesis, diffusion and componentiality: An account of Atlantic anglophone creole origins", in P. Muysken and N. Smith (eds.), *Substrata versus universals in creole genesis*, pp. 71-102.
- James, C. (1963),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second edition, New York: Vinage Books.

- Laguerre, M.(1980), "Haitians", in S. Thernstrom (ed.), *Harvard encyclopedia of american ethnic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446-449.
- McWhorter, J. H.(1995), "The scarcity of Spanish-Based Creoles Explained", *Language in Society*, No. 24, pp. 213-244.
- Muysken, Pieter(1988), "Are Creoles Special Type of Language?", in Frederick J. Newmeyer(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Vol. II: Extensions and Im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5-301.
- Naro, A. J.(1978), "A study of the origins of pidginization", *Language*, Vol. 54, No. 2, pp. 314-347.
- Sankoff, Gillian(1990), *The social life of languag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hields, Kathryn(1989), "Standard English in Jamaica: A case of competing models", *English World-wide*, Vol. 10, No. 1, pp. 41-53.
- Seuren, P. M.(1983), "The auxiliary system in Sranan", in F. Heny & B. Richards (eds.), *Linguistic categories: auxiliaries and related puzzles 2*, Dordrecht: Foris.
- Todd, Loreto(1990), *Pidgins and Creol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econd edition.
- Whinnom, K.(1965), "The origin of European-based pidgins and creoles", *Orbis*, No. 14, pp. 509-527.
- Wardhaugh, Ronald(1986), "Pidgin and Creole Languages",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asil Blackwell.